

심민 임실군수,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소총사 신년 참배 이어 코로나19 검체 검사로 애쓰고 있는 직원 격려

심민 임실군수가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소총사 신년 참배에 이어 코로나19 검사물량 폭증으로 연일 고생하고 있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심 군수는 4일 오전 9시 이석용 의병장 및 28의사를 기리기 위해 소총사 신년 참배를 마친 뒤 임실읍에 소재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다.

심 군수는 소총사 참배에서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군민의 안전과 평안,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며, 2021년 선진강 르네상스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군정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어 곧바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은 심 군수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로 애쓰고 있는 유택수 원장 등 직원들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심 군수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은 데는 지난 연말 코로나19 확산세로 몰려드는 검사물량에 연구원들이 밤을 새가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물량은 지난 해 2월 월 평균 4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연말 들어 52배 폭증한 2만3,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채취한 검체의 3분의 2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되고 있고, 요양시설과 학교 등의 집단감염으



심민 임실군수가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소총사 신년 참배에 이어 코로나19 검사물량 폭증으로 연일 고생하고 있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로 의심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루 700~1,000여건의 검체를 분석 하고 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총 24명의 연구원들은 4명이 한 조를 이뤄 6개조의 비상근무반을 편성,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 지난 10개월 간 9만여건의 감염 여부 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의 일년 가까이 이어진 밤샘 근무와 검사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체력적 한계를 뜻조각히 이겨내고 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임실군민과 도민을 지켜내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연구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함께 노력해서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에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새해 첫날 바쁜 시점에서 우리 연구원을 찾아 격려해 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연구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임실군민과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남섭 순창군 부군수 취임

이남섭(56) 전라북도 혁신성장 정책과장이 4일 순창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신임 부군수는 장류산업과 문화관광, 뉴딜산업 등 순창군 현안 사업의 육성을 이끔 책임자로 발탁되어 4일부터 부군수 직을 수행한다.

이 부군수는 "순창에서 일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청정순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황수주 군수님을 잘 보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가 예산 확보, 순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직자에 대해서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매우 유능하고 성실한 것으



로 알고 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의 없는 대화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 역점사업과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고, 전라북도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끝으로 "순창의 올해 사자성어인 노겸근칙(勞謙謹勅)을 저부터 실천해, 부지런히 애쓰며 겸손하고, 실수가 없도록 삼가고 경계하겠다. 순창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 고향인 이 부군수는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장, 총무과 비서관, 공보관실 공보행정팀장, 체육정책과 체육진흥팀장, 기업지원과장, 혁신성장정책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영민 임실군 부군수 부임

임실군 신임 부군수로 지역출신인 김영민(55)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이 부임했다.

4일 김영민 신임 부군수는 정식 임명을 받고, 본격적인 군정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 부군수는 "고향에 와서 부군수로 근무하게 되어 지역발전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민선 7기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행복해지는 임실군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도와 중앙부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임실군의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도 심민 군



수님이 성공적인 군정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군수는 평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합리적이면서 추진력이 강하며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그는 관혼면 출신으로 지난 1982년 임실군정을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에서 환경, 국제, 경제, 체육, 농업 분야까지 두루 거친 민생 행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부군수는 전주 신흥고를 나와 전주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임실군청과 관촌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전라북도 국제협력과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관실, 정부전산센터 등을 거쳤으며, 이후 전라북도 환경정책팀장, 생활체육대추전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앞서 부군수를 역임한 조호일 전 부군수는 전라북도 농업협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실=진홍영 기자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시, 시무식 갖고 역점·현안사업 추진 박차 등 다짐

남원시는 4일 2021년 시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환주 시장은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시정 목표로, 直心必遂(직심필수)의 자세로 민선 7기 후반부를 만족시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더 큰 남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동력 삼아 올해도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직원들에게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형국으로 더욱 필요성이 절실해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더욱 착실하게 준비해 2024년에 반드시 개교할 것"을 밝히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 시합노선 지자체 공모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과 간부공무원 10여명은 시무식에 앞서, 만민의총을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참배했으며, 남원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신년 해맞이 행사와 간부 상견례를 취소하고, 시무식 행사도 온라인 영상송출 형식으로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무궤도 열차 상반기 도입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산업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무궤도 열차를 사업비 3.5억을 들여 올해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궤도 열차는 20인승 규모의 기차형태로 제작되어, 지리산 허브밸리의 꽃과 자연을 감상하며 전망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지리산 허브밸리는 허브밸리 전체를 조망 가능한 전망대 및 청소년의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스카이트레일도 도입예정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리산 허브밸리는 2021~2025년까지 5년간 고도화 사업으로 새롭게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감성정원으로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순창군이 최근 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실에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설치를 완료했다. 매해 황사 등 대기오염이 악화되면서 실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0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000만원(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투입, 최근 준공을 완료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시스템의 보급·설치를 통해 체육활동이 취약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사회 주역으로의 성장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실내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동·청소년들이 장비를 활용해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차고 뛰고 던지며 운동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군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260여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다양한 놀이를 통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청소년의 전인교육에 기여할 수 있고 더불어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겨울정원 조성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에 포인세티아와 말채 등 겨울에 빛이 나는 식물을 소재로 겨울정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지리산허브밸리에서는 운봉에 향화와 함께 매년 바래봉 눈꽃축제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방역에 따라 일체의 집합행사를 금지하고 겨울동화정원과 식물원 등 겨울정원을 조성, 9일 오픈예정이며 동시에 영상을 제작,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방식도 준비하고 있다.

겨울정원은 식물원 1층과 2층에 포인세티아와 관엽식물 중심 겨울화단 장식, 크리스마스 선물박스를 형상화한 선물박스 꽃길, 꽃폭포 등이 설치되며 입구 야외에는 붉은색 말채 조형 화분이 관람객들을 반길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